



포장 발전에 실질적 도움 되고자

포장에 대한 인식 전환 시급

안지혜 / 경북과학대학 포장개발전공

제 15회 한용교포장인상 수상자 중 장학생 부문에 선정된 경북과학대학 포장개발전공 안지혜 학생은 “너무도 기쁩니다. ‘한용교포장인상’을 받기까지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안지혜 학생은 우연한 기회에 포장을 접하게 돼 전공한 지 불과 1년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포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처음 포장을 접하게 된 것은 인터넷을 검색하다 우연한 기회에 경북과학대학 포장개발전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생소함 반, 호기심 반으로 좀더 구체적인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았고, 그 결과 포장이란 분야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제 자신이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는 의욕이 생겨 입학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직은 보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포장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국내 포장산업이 제도적으로, 교육적으로나 인식적으로 많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라며 “때문에 포장을 공부하며 어느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포장발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열심을 다할 것입니다”라며 당찬 모습을 보였다. 현재 안지혜 학생은 포장 동아리인 “포·연·

사(포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다. 포·연·사는 경북과학대학 포장개발전공 포장 동아리로서 기존의 포장에 대해 토론과 새로운 아이디어 회의 등 포장을 좀더 연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모임이다. 안지혜 학생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남들보다 좀 늦은 나이 때문에 우선은 재학기간 중 많은 실력을 쌓아 포장업계에 취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계획입니다. 물론 아주 광범위한 포장분야를 2년만에 배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라며 취업 후 편입과 대학원을 진학해 학업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안지혜 학생은 “아직까지는 ‘포장’이라 하면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접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 너무 아쉽습니다. 때문에 하루빨리 포장 발전을 이루고, 포장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자 선 포장인들이 힘써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아직은 포장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은 없지만 장차 포장산업을 깊어지고 나아갈 안지혜 학생의 열띤 정열과 젊은 패기는 포장산업의 미래가 밝음을 짐작케 했다. ☎

권해진 기자